

# 이정현 지명직 최고위원맨 호남 위상 'UP'

■ 활용 방안 커지는 새누리 '이정현 카드'

## 당청, 대야 소통창구 역할 기대 주요 당직 임명 가능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4일 사무총장 등 당직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호남에서 지역구도 타파의 물결을 탄 이정현 의원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호남 및 최고위원으로 이정현 의원이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새누리당 내부의 전반적인 관측이다. 지금까지 호남 및 지명직 최고위원은 대부분 원외 인사가 맡았다는 점에서 현역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인 이 의원이 최고위에 진출한다면 호남의 위상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구색 맞추기로 제기됐던 호남 현안 문제들도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임명되면 당청 관계의 소통에도 확실한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 무게감을 높여 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이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데다 전남 지역구 의원이라는 점에서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과의 소통 창구 역할도 기대된다.

하지만 이 의원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한 차례 역임한 바 있다는 점에서 다른 주요 당직이 맡겨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서는 당내 호남특위를 구성하고 이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오히려 인위적이라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배정된 만큼, 당에서 예산 국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은 벌써부터 내년 예산 확보 준비에 나서고 있다.

국회 예결위와 산자위에 배정된 이 의원은 최근 순천시청에 들러 실무자에게 내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 시간 가량 즉석 토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폭탄 논란과 관련,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복심이라서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통해 여당과 정부를 설득, 호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이정현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정현 의원 당선을 계기로 새누리당이 지역주의 타파와 국민대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말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사무총장 후보로 3선의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에 체류 중인 유 의원은 내년 원내대표 출마를 준비 중이어서 총장직을 고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이 끝내 고사할 경우

사무총장에 김태원(경북 구미울) 장운석(경북 영주) 의원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 가운데 한 자리에 TK 출신인 4선의 이병석(경북 포항 북구) 의원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 여의도연구원장에는 4선인 정병국 의원과 원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진수희 전 의원, 3선을 지낸 권오을 전 의원, 이해훈 전 최고위원 등도 물망에 오른다. 대변인은 현재 박대출, 민현주 대변인을 유임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분노의 질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가 3일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지난 4월 발생한 윤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선임병에 의한 집단폭행 사망사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를 질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무성호의 '보수혁신' 밑그림

## 전략공천·당론투표 배제 수평적 당·청관계 실현도

7·30 재보선에서 완승을 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당 혁신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6·4지방선거와 7·14 전당 대회를 거치며 '보수혁신의 아이콘'이 되겠다면서 혁신을 당 안팎에 공언해 왔으며 이제 약속을 실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혁신을 보여주지 못하면 오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전망이다.

김무성 대표가 지난 1일 "선거 대응에 연연해서는 안된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록권을 내려놓고 당의 혁신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현실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 후보군의 명으로 꼽히는 김 대표는 혁신의 성과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8일 녹화해 이틀날 공개한 이준석 '새누리를 바꾸는 혁신위원회' 위원장과의 영상대담에서 혁신 구상의 윤곽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전략공천을 철저히 배제한 상향식 공천과 당론투표 배제, 당내 혁신기구 상설화를 제시했다.

김 대표가 평소 강조해온 '탕평 인사'와 대야관계 개선, '수평적 관계'를 위한 새로운 당·청 관계도 주요한 혁신 대상

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표는 조만간 당직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상설 혁신기구 구성 등을 통해서 본격적인 혁신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대표의 혁신 작업이 순탄하더라도 많은 것으로 관측된다.

혁신 기조에 따라 민감한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주류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김 대표와 당내 진박(진박근혜)계와의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당·청 관계와 맞물리는 상황일수록 갈등은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당내 초·재선 의원들로 이뤄진 혁신연대를 비롯한 혁신그룹이 김 대표의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하면서도 때로는 견제 역할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의 혁신 아이디어를 주도해온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은 3일 "혁신은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며 "김 대표의 어깨가 혁신으로 무겁게 짓눌려졌지만 반드시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혁신대 소속 조해진 의원은 "민생과 국가적 과제를 일삼으 있게 잘하면서도 깨끗하고 청렴한 정당을 국민이 바라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고치고 바꿔야 할 것을 하나하나 찾아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순천경실련 "이정현 당선, 지역발전 갈망한 지역민의 선택"

무기력 야당 경고...이 당선자 공약 이행 촉구 메시지

순천의 시민단체가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은 정치 혁신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이자 지역발전을 갈망하는 지역민의 선택이라는 논평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7·30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에 따른 입장'에서 "이번 선거결과는 그동안 이 지역에서 여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역에서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평가이자 공천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이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한 결과이며, 무기력한 야권에 대한

경고이자 정치권의 정치혁신에 대한 요구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순천경실련은 또 "야당인 텃밭이라고 불리던 호남지역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후보가 26년 만에 당선된 것은 이번이 아닐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11년 당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 치러진 4·27 보궐선거에서 지역정서와는 무관하게 야권연대를 통해 지역민의 후보 선택 기회를 빼앗고 특정 정당의 후보를 선택하도록 하

더니 그 이후 치러진 각종 선거에서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당선자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이 당선자는 그동안 선거로 인해 갈라진 지역민심을 화합의 장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며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화, 순천대 유치 등 공약의 이행과 함께 진정한 순천·곡성 지역민의 복심(腹心)이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7·30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서갑원 후보(40.32% 4만9611표)를 1만1204표 차로 누

르고 당선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49.43% 6만815표)는 오는 7일까지 지역민에게 '자전거 당선 인사'를 마친 뒤 상향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신현일 순천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이 지역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은 곧 현 정권에 대한 지지로 받아 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심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엎기도 한다"는 경구처럼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정치권 모두가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예정열기자 jyj@kwangju.co.kr

## 김무성 "윤일병 폭행사망은 살인사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윤군 28사단에서 윤모 일병이 지난 4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집단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분명 살인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군 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군에 갔다가 천안공노 할 이런 일을 당했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장관은 자식도 없느냐"고 질책했다.

김 대표의 '살인사건' 언급은 폭행·가혹행위에 가담한 병사 4명과 이를 묵인한 유도 하사 등 5명에 대해 군 검찰이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할 것을 의식,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책임을 내려치며 분노를 표시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왜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느냐. 왜 이것을 쉬쉬 덮으려고 그러느냐"면서 군의 은폐혹까지 제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윤 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4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다. 황진하 국방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건 벌어졌으니 상임위를 열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하게 따져 볼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고 병영 내 유사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긴급 현안질의에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위장병, 반복할 것인가?**

**카베진으로 회복할 것인가!**

**지루지루 반복되는 위장병!**  
시도 때도 없이 괴로운 위통, 속쓰림, 소화불량에 오해 내내 불편한 더부룩함과 답답함, 신트림 등... 위장병은 왜 반복될까요?

**문제는 바로 위장막!**  
손상된 위장막은 반복되는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장병은 위장막부터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배추 유래 성분 MMSC의 위장막 회복 효과!**  
카베진코와 S정은 양배추 유래 성분 MMSC\*가 함유되어 있어, 손상된 위장막을 회복시키고 위장병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킵니다

\*MMSC(메틸메티오닌)는 포도당화합물인가?  
양배추 추출물의 황소화합물인 MMSC는 배터민 나리코도 불리며, 위장막 수복 효과와 긴 장에 대한 개선효과 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1) Jpn Pharmacol Ther(약리와 치료) 35(1), 41-49(2007)

**지루지루한 위장병을 개선시키는 4가지 효과! 새로 나온 카베진코와 S정**

- MMSC 성분으로 위장막 회복 효과
- 재산성분 배합으로 위산 자극 완화 효과
- 참숯건조엑스 함유 위 운동 촉진 효과
- 리파제 AP12의 소화 작용 촉진 효과

**카베진코와 S정의 2중정 작용**

오중과 함유의 2중정(순차적으로 분해)하여 각 성분이 위장병 개선에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복합 성분인 카베진, 참숯 건조 엑스 - 2중, 소르비톨의 소화제인 리파제 AP12와 참숯 엑스 + MMSC의 위장막 회복

**위장병을 회복할 땐 카베진코와 S**